

미국장로교 2021 년 제 사십 팔 차 총회 결의안들 총회 서기 브라이언 채펠

제 48 차 총회 장소, 미조리 주 세인트 루이스 시, 2021/6/28-7/2

미국장로교 제 48 차 총회는 코비드 19 역병으로 중단된지 이년 만에 미조리 주 세인트 루이스 시에서 열렸다. 86 개의 노회에서 967 교회들을 대표하는 총 2,114 명(강도 장로 1,499 명과 치리 장로 615 명)의 총대가 등록했다. 미조리 노회가 주최한 총회의 주제는 “**막힘 없다: 막힘 없는 왕국의 선포**”였다. 치리 장로 필 밴 바켄버그가 주최 위원회 회장이었다.

예배는 총회의 중요한 일면이다. 화요일 저녁 성찬 예배에서 은퇴하는 총회장 시무 장로 하워드 “하위” 도노회가 누가복음 23:32-43 을 본문으로 “천국”에 대해 설교했다. 수요일에는 워싱턴 디씨의 은혜교회 부목사인 러스 핏필드 목사가 요나서 4:1-11 본문으로 “광고함의 진실”에 대해 설교했고, 목요일에는 뉴욕 동부 리더머 장로교회 담임 아브라함 조 목사가 고린도후서 2:14-3:5 본문으로 “약함의 영적 능력”에 대해 설교했다.

금년에 전 총회적으로 열린 세미나는 “**교회의 장래 영광: 우리가 그리스도의 목적들을 위해 환상을 품은 미국장로교**”였다. 토론자들은 마이클 알렌 목사 (학장이며 존 다이어 트림블의 조직신학 교수, 올랜도 리폼드 신학교), 찰스 (척) 게리엇 목사 (상임 이사, 국가에 대한 국내선교부 사역), 브라인언 하빅 목사 (목사, 사우스 케롤라이나 주 그린빌 시의 다운타운 장로교회), 줄리아스 킴 목사 (회장, 복음 연맹), 필립 라이큰 박사 (총장, 휘튼 대학)와, 쉘만 윌리엄스 박사 (목사, 미조리주 세인트 루이스 시, 뉴 시티 웨스트 엔드) 였다.

총회장, 강도 장로 L. 로이 테일러

미국장로교는 격년으로 목사 혹은 시무 장로를 총회장으로 선출하는 전통을 갖고 있다. 금년에는 은퇴한 교단 총회 서기인 강도장로 L. 로이 테일러가 총회장으로 선출되었다. 테일러 박사는 다섯 살 때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고백했고 여덟 살 때 사역으로의 소명을 감지했다. 알라바마 주 버밍햄에 있는 한 침례교에서 양육된 테일러 박사는 그의 신학교 생활 초기 변증학 수업을 위해 필수적으로 코넬리어스 밴 톨을 읽게 되면서 개혁주의 신학을 소개 받았다. 오래지 않아 그는 스스로 그의 읽기 과제가 하지, 벌코프와 벌카위의 책들로 보완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뉴올리언즈 침례교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 장로교인이 되었다. 졸업 하면서 그는 알라바마 주 갯스덴 외각에 있는 레인보우 시티 장로교회의 목사로서의 섬김을 수락했다. 그와 그의 교회는 그 기초부터 미국장로교의 일부가 되었다. 그 때부터 그는 빠짐없이 총회에 참석해 왔다. 테일러 박사는 레인보우 시티의 섬김에 이어, 실천 신학 교수로 미시시피 주 잭슨 시에 있는 리폼드 신학교의 교직원들과 합류했다 (1977-1982 과 1993-1998). 두 교육직들 사이에 테일러 박사는 미시시피 주 해티스버그 제일 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섬겼다. 1998 년 제 26 차 총회에서 그는 교단 총회 서기로 선출되었고, 2020 년 9 월 은퇴 할 때까지 그 직임으로 섬겼다. 총회 서기로 있으면서, 테일러 박사는 1998 년부터 2020 년까지 국내 복음주의 협의회 이사로도 섬겼는데, 2006 년부터 2020 년까지 이사장직을 맡았다. 1998 년과 1999 년에는 북미주 장로교회 및 개혁교회 협의회(NAPARC)의 회장으로 섬겼다. 2006 년부터 2020 년까지 테일러 박사는 세계 구제 이사회의 이사였다. 은퇴 후 테일러 박사는 사우스 케롤라이나 주 그린빌 시로 이주하여, 치매에 걸린 56 세 된 그의 아내 돈나의 전담 케어기버로 지내왔다. 테일러 박사는 두 자녀와 아홉 손자들을 두고 있다.

2019-2021 코디네이터 이동 사항

- **행정 위원회/사무실 총회 서기**
 브라이언 채펠 박사가 제 48 차 총회에서 미국장로교 네 번째 총회 서기로 선출되었다. 그는 코비드 19 역병으로 제 48 차 총회가 연기되며 야기된 공백 기간에 임시 총회 서기로 섬겨 왔다. 채펠 박사는 2020 년 9 월부터 교단 총회 서기에서 **은퇴한 L. 로이 테일러 박사**의 후임이다. 테일러 박사는 같은 위치에서 20 년이 넘도록 섬겼다.
- **커버넌트 신학교**
툼 C. 깁스 박사가 이사회에서 커버넌트 신학교의 제 6 대 총장으로 섬기도록 선출되었다. 그는 근 십여년 가까이 총장으로 섬겼던 은퇴한 **마크 L. 달비 박사**의 후임이다. 깁스 박사는 텍사스 주 샌 아토니아 시의 (본 교단) 리더머 장로교회로부터 이 위치에 이르렀다. 그 교회에서 그는 담임 목사로 섬겼다.
- **국내선교위원회**
 2021 년 1 월 1 일부로, **시무 장로 브렌트 앤더센**이 제 48 차 총회에서 인준 받을 것을 따르기로 하고, 국내선교위원회로부터 **국내선교위원회 코디네이터 임시 대행**으로 섬기도록 청빙 받았다. 그의 청빙은 총회에서 인준되었다. 성공적인 은행 경력과 함께, 시무 장로 앤더센은 이 역할에 당회와 노회 수준에서의 선교와 교회 개척 리더십의 폭 넓은 경력을 더 하고 있다. 앤더센 씨는 중경 국내선교위원회 코디네이터 **강도 장로 폴 한**의 후임이다. 폴 한 목사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본 교단의) 퍼시픽 크로스로드 교회의 임시 목사로 섬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기 위해 2020 년 12 월 31 일부로 국내선교위원회를 사임했다. **국내선교위원회 코디네이터 청빙위원회**는 적극적으로 차기 코디네이터 탐문을 이끌어 가고 있다.
- **미국장로교 은퇴 및 혜택 재단**
강도 장로 에드워드 W. 더닝톤은 2020년 7월에 미국장로교 은퇴 및 혜택 재단(RBI)의 회장직을 물려 받았다. 더닝톤 목사는 14년 동안 회장으로 섬긴 후 은퇴한 **치리 장로 케리 D. 캠벨**의 후임이다. 캠벨씨는 투자 전문가 직원으로 남을 것이다.

열 개의 총회 차원 사역들의 보고서들의 강조점들

총회는 각 향존 위원회들과 기관에게서 그들의 추천안들에 대한 정보용 보고들을 듣고, 그들의 추천안들에 대해 결의했다. 총대 위원회(CoCs)는 그들에게 할당된 위원회들 혹은 기관들의 보고와 추천안들을 검토하는데, **총운세 14-6.0**와 **z**의 규정 아래 다수표로 그 향존 위원회의/기관 이사회의 추천안들 어느 것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 할 수 있다. 금년에는 여러 가지 그러한 대체 추천안들이 채택되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은 아래에 기록되었다.

- **행정위원회/총회 서기 사무실** - 2020 년 총회의 취소는 위원회 예산에 중대한 부정적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비용 삭감, 교회들과 개인들에게서 온 연말 기부들, 이미 지불한 총회 등록비를 많은 총대들이 자원하여 한 기증, 위원회 위원들, 행정부 직원, 상법위의 위원들의 기부들의 조합을 통해 행정위원회는 매우 근접하게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며 한 해를 마감했다. 행정위원회와 현의위원회 모두에게 할당된 여러 가지 현의안들은 후자의 의해 제공된 응답들에 관련하여 응답되었는데, 아래에 기록되었다. 열 개의 총회 사역들의 예산은 인준되었다.
- **제자사역위원회** - 역병이 도는 동안, 제자사역위원회는 페이스북 생방송 돌쩌귀 에베소서 성경공부와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추잡한 여자들”에 대한 여름 성경 공부를 통해 미국과 캐나다 전반의 여성들 뿐만 아니라 세계선교회 선교사들을 위한 관계적 연결점을 제공했다. 다른 강조할 만한 행사는 2 월의 여성 사역 지도자 훈련과 다가오는 8 월 20-21 에 있을

제 48 차 총회 결의안들 - 브라이언 채펠

어린이 사역으로 가상 공간에서의 **성장** 회합이다. 제자사역위원회의 어린이 사역 수료증 프로그램은, 2021 년에 등록된 45 명의 학생들과 함께, 현재까지 73 명의 학생들에게 수료증을 발급했다. 제자사역위원회는 돕는자 (Help[Her]) 사역을 활용하여 위기를 당한 여성들을 목양하는 여성들을 훈련하기 위해 노스캐롤라이나 주 매튜스에 있는 그리스도 언약 교회와 동역하고 있고, 음악과 예배 인도자들을 격려하고 구비 시키기 위해 내쉬빌에 있는 언약 교회와 동역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 출석한 총대들이 남성 사역 설문 [조사]를 하라고 초대 받은 것은, 제자사역위원회의 남성 사역 팀으로 하여금 본 교단 교회들이 그들의 남성들을 격려하고 구비 시키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해 더 나은 감을 잡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었다.

- **커버넌트 대학교** - 지난 해 대학교는 기록적인 학생들 보유수를 기록했다. 3년 연속 대학교 연간 기금을 위해 기록적 금액이 모금되었다. 가을 등록은 이전 해보다 29% 앞서고 있고 예산은 7% 앞서고 있다. 2022년 가을 학기 문의는 이전 해 보다 38% 앞서고 있다. 졸업생의 93%가 한 교회의 교인들이거나 정기적인 출석자들이고, 45%가 어떤 형태로든 교회 지도자이거나 지도자였었다.

총회는 이사회가 이사들을 위한 안식년 정책을 채택한 것을 제외하고, 이사회 회의록 한 세트에 관하여 커버넌트 대학교 총대 위원회가 제출한 대체 추천안을 채택했다. 이사회는 이 제외안에 대한 이사회 조치를 내년 총회 때까지 보고하도록 요청 받았다.

- **커버넌트 신학교** - 금년에 등록은 7년 중 최고를 달성했다. 금년이 목회학 석사와 성경학 및 신학 석사 학위를 신학교의 하이브리드 프로그램으로 한 지 3년째인데, 그것이 잠재적 학생들을 위해 그 프로그램들을 더 저렴하게, 더 접근 가능하게, 그리고 더 융통성 있게 만든다. 미래를 위한 희망 캠페인은 사천 만불 모으기 목표를 초과 했다.
- **국내선교위원회** - 역병에도 불구하고 교회 개척의 노력은 2019년과 2020년에 전진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남미계, 한국계 미국인, 하이티계 미국인과 폴투갈 언어권 공동체들 가운데 교회 개척자들과 목사들이 증가 되었고, 연합 기금은 장로 리더십을 준비하고 있는 56명의 소수 후보자들에게 장학금을 주었다. 영어를 제 2언어로 하는 34개의 새 사역이 시작되었다. 메타노이아 교도소 사역은 50명의 새 옥중 멘토를 추가했고 200명의 새 서신 사역 학생들이 증가했다. 역병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자연 재해들에 대응하는 주요 자원 봉사자들이 국내선교부의 재해 대응에 동원되었다. 장애들에 관련하기는 워싱턴과 웨비나들을 실시했고 지역 교회 안에 있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관련하기 위한 교과 과정 내용을 개발했다. 국내선교회 채플린 사역은 166명의 미국장로교 군목과 58명의 민간 채플린을 섬기는데, 그 중의 다섯은 양 쪽을 다 하고 있다.
- **세계선교위원회** - 역병이 도는 동안 세계선교회는 세계선교회의 회원 돌봄 연락망, 지역 중심 팀들과 클라우드에 기반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사용을 통해 세계선교회의 선교사들, 선교사 후보들, 또 미국에 있는 교회들과 밀접한 접촉을 유지해 왔다. 현지에 있는 팀들은 열려야 될 새 나라들, 새 도시들과 조우되어야 될 미치지 못한 민족군들, 개척되어야 될 새 교회들, 개발되어야 될 새 학원 사역들과 새 개척 교회 후원 사역들을 위한 목표들의 윤곽을 그리는 십년 계획을 개발했다. 역병에도 불구하고, 2020년은 지난 9년 동안 파송된 새 선교사들 중 세 번째 큰 규모를 보았다.

제 48 차 총회 결의안들 - 브라이언 채펠

총회에 보내진 세 개의 헌의안들은 (2019 년 총회에 하나, 금년 총회에 다른 둘), 교회 개척과 교회 개발에 관련된 모든 현장 팀들의 “명령 권한” 리더십을 안수 받은 장로들로 제한하기 위해 해외선교회 정책 지침서의 수정을 요청한 것인데, 해외선교회 향존위원회에 일임됐다. 향존위원회는 이 헌의안들 중 하나에 수정을 추천했는데, 그것은 비상한 경우에 자격이 있는 안수 받지 않은 팀 지도자들의 임명을 위한 절차를 제공 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 직위들이 안수 받은 장로들에 의해 채워질 것을 요구하는 해외선교회 총대 위원회가 제시한 대체 추천안이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 **미국장로교 재단** - 미국장로교 재단은 일억 삼천 오백만 불 이상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다. 2020년에는 2019년 보다 45% 더 많은 기부들을 용이하게 했다. 2020년에 재단은 교단 교회들과 사역들에 천 삼백 오천 만불을 기부했고, 육백 칠천 만불을 같은 생각을 가진 다른 기독교 사역들에 기부했다. 교단 교회들의 11%가 재단의 온라인 기부 수단을 사용한다.
- **미국장로교 은퇴 및 혜택 재단** - 은퇴 및 혜택 재단은 최근에 우리 목회자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해 그들의 필요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목회자 강령 설문 조사를 마쳤다. 미주 한인 장로교회와 개척교회 협의회는 각각 은퇴 및 혜택 재단의 403B 를 그들 교단의 은퇴 플랜으로 인준했다.
- **학원선교위원회** - 학원선교위원회는 역병이 도는 동안에도 활동들이 온라인으로 이동하도록 강요되긴 했지만 그들의 사역에 새 학교들을 추가했다. 학원선교회위원회는 1974 에 한 학교 사역에서 시작하여 지금은 170 학교로 성장했다. 2016년에 4 학교 간사가 지금은 49 명이 되었고, 1986년에 6 명의 인턴이 지금 176 명이 되었다.
- **릿지 헤이븐 회관** - 2020년에 릿지 헤이븐은 지역 코비 19 제한들을 따라 집회를 여는 것을 허락 받았고, 노스 캐롤라이나 캠퍼스에서는 온전히 11 주, 아이오와 캠퍼스에서는 3 주의 집회를 주최 할 수 있었다. 비록 2020년 참석자 수는 역병으로 반토막이 났지만, 2021년은 역사상 가장 바쁜 여름이 되도록 속도를 내고 있다. 릿지 헤이븐은 노스 캐롤라이나에 체육관을 짓기 위해 기금을 모으고 있고 아이오와에 있는 사역을 확장하고 있다.

노회록 검열위원회 (RPR)

두 가지 중요한 사안들이 상당한 토론 후 결의되었다:

- **갈보리 노회 회의록에 관한 추천안.** 갈보리는 한 목회자가 “우리 교리 체계의 어떤 근본적인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아닌 것”으로 노회가 수용 해 온 (총운서 16-3.0.5.0) 자신이 진술한 웨스트민스터 표준과의 이견을 설교하거나 가르치지 못하게 금했다. 2018년 총회는 이것이 본질에 대해 하나의 예외라고 보았다. 갈보리의 대응은 2019년 총회가 재언급한 판단에 동의하지 않음을 표현했다. 대응으로, 갈보리는 동의 할 수 없음을 쇠신했다. 노회록검열위원회는 그 사안을 상법위에 일임할 것을 추천했는데, 이는 총회와 어떤 노회가 그러한 사안에 대해 난관에 봉착할 때 따르도록 총운서 16-10.0에 처방된 절차다. 갈보리의 대응이 만족한 것으로 판결 될 것을 요구하는 소수 보고서가 접수되었고 (총운서 16-7.0), 이 소수 보고서가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 **유사한 노스웨스트 죠지아 노회 노회록의 추천안.** 2019년 총회는 한 목사가 그의 인준된 예외를 가르치도록 허락 할 것을 거부한 노회를 예외로 삼았다. 노회는 그들의 응답에서 동의할 수 없음을 표현했다. 동 위원회는 그 응답이 만족할 수 없는 것으로 판결되고 그 사안은 상법위에 일임되어야 한다고 추천했다. 이 경우 소수 보고서는 없었으나, 노회의 응답이 만족한 것으로 판결되어야 한다고 한 회의 석상에서의 동의가 채택되었다.

제 48 차 총회 결의안들 - 브라이언 채펠

동 위원회는 목회자가 그의 인준 받은 예외를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 위한 본질의 예외와 함께 미시시피 벨리 노회가 인용될 것도 추천했다. 회의 석상에서의 동의로 그 상정된 예외는 보고서에서 삭제되었다.

한인 동북부 노회가 노회 산하 각 교회들의 당회록 검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우려하는 한인동북부 노회에 관한 보고서에서 본질의 예외는 삭제하도록 한 동의가 채택되었다.

대외 교단 관계 위원회

시간의 제약들과 코비드 19 제한들 때문에 형제 교단들은 안부를 전하고 사역 정보를 나누기 위한 대표들을 금년 총회에 보내기 보다는 비디오를 제출해 줄 것을 부탁 받았다. 비디오들은 한 주 내 다양한 시간에 관람되었다.

임시위원회들 보고

2019 년 총회는 두 개의 임시위원회들(AIC)을 제정했는데, 금년 총회에 보고했다:

- 인간의 성에 대한 임시위원회는 그 과제를 마치고 2020 년 5 월에 그 보고서를 공개했다. 총회에 동영상으로 한 발표에서 팀 켈러 박사와 케빈 디영 박사는 보고서의 전문과 열들로 요약된 진술문을 강조했다. 그 위원회가 총회가 채택하도록 제시한 추천안은 아무 것도 없었지만, 갈보리 노회가 상정한 헌의안이 인준되었는데, 그것은 총회가 그 보고서를 성경적으로 충실한 것으로 선언하고 그것을 제자사역위원회에 일임하여 제자사역위원회의 교단적인 학습 자료들 가운데 포함 시키고 조장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이 위원회의 위원들은 다음과 같다. 회장, 강도 장로 브라인 채펠; 강도 장로들, 케빈 디영, 팀 켈러와 짐 와이드나르; 치리 장로들, 데렉 할보슨, 카일 키팅과 짐 폭다.
- 가정 폭력과 성 폭행에 관한 임시위원회는 과제를 마치기 위해 한 해를 더 연장 해 줄 것과 한 해 예산 25,000 불을 인준해 줄 것을 총회에 요청했다. 총회는 두 결의안을 인준했다. 총대들 중 한 사람은 한 기부자가 동 위원회의 사역을 위해 최대 25,000 불까지 제공 할 것을 서약했음을 시사했다. 위원회의 위원들은 다음과 같다. 회장: 강도 장로 티모디 르크로이 박사; 강도 장로들, T. 칼훈 보로우스, 로이드 피어슨과 웨인 왈드론; 치리 장로들, 켈리 던어트, 데빗 하벌작과 라버트 구즈워드. 레이철 덴홀렌더 부인, 앤 마리 구즈워드 부인, 다이엔 랜버그 박사, 바바라 세이퍼 박사와 다비 스트립랜드 부인은 동 위원회의 자문 위원들로 섬겼다.

상임 법사 전권위원회

상임 법사 전권위원회는 2019 총회 후 결의 해 온 사례들에 관해 보고했고 상임 법사 전권위원회 운영 지침서 (OMSJC) 4.1 과 2.10.의 변경을 추천했다. 수정안들은 채택되었다.

헌의위원회를 통해서 총회에 상정된 헌의안들

헌의안은 일반적으로 총회가 결의해 주기를 바라는 노회의 요청이다. 제 48 차 총회에는 마흔 일곱 헌의안들이 제출되었다. 모든 헌의안들의 목록과 최초에 제출된 대로의 각 헌의안 원문은 <https://www.pcaac.org/general-assembly/overtures/>에서 볼 수 있다 (주의: 헌의안 7 은 철회됐다). 총회는 헌의위원회에 일임되었던 아래 헌의안들의 추천안들을 채택했다. 금년에는 강도 장로 W. 스캇 바버가 회장이었다. (주의: 제 48 차 총회에서 처음에 채택된 헌법의 변경들은 그것들이 헌법의 일부가 되기 이전에 후속적으로 반드시 노회들의 2/3 의 다수표로 인준되어야 하고 최종적으로 제 49 차 총회에서 다수표로 인준되어야 한다.)

- 갈보리 노회가 상정한 헌의안 5 는, 목사들, 부목사들과 직분자들의 선출에 관한 헌법 20-4; 24-3; 24-4 를 수정하는 것인데, 수정된 대로 채택되었다.

제 48 차 총회 결의안들 - 브라이언 채펠

- 어센션 노회에서 상정한 헌의안 9 는, 소수 보고서를 접수 시키기 위해 요구된 헌의위원회의 회원수에 관한 총운세 15-6.1.2)와 3)을 수정하는 것인데, 수정된 대로 채택되었다.
- 퍼시픽 노스트 노회에서 상정한 헌의안 17 은, 임시위원회를 위한 자금 지원을 명시하기 위해 총운세 9-3 을 개정하는 것인데, 수정된 대로 채택되었다.
- 퍼시픽 노스트 노회에서 상정한 헌의안 18 은, 당회가 직분자 후보들의 시험의 어떤 부분들에 대해 재량[권]을 가진다고 한 것을 명시하기 위해 헌법 24-1 을 수정하는 것인데, 수정된 대로 채택되었다. 헌의안 6 는 이 헌의안에 관한 결의와 관련하여 응답되었다.
- 퍼시픽 노스트 노회에서 상정한 헌의안 22 는, 범행들에 대한 시간적 고려들에 관하여 헌법 32-20 을 수정하는 것인데, 수정된 대로 채택되었다.
 걸프 코스트 노회에서 상정한 헌의안 23 은, 스스로 “동성애자 그리스도인들”, “같은 성에 이끄는 그리스도인들”, 혹은 그와 같은 말들로 정체성을 밝힌 남자들의 안수를 금하는 구절을 추가하여 헌법 17 을 수정하는 것인데, 수정된 대로 채택되었다. 이 헌의안은 헌의위원회가 그것을 제출하고 총회가 인준하기 전에 광범위하게 수정되었다. 수정하도록 상정된 헌법의 장은 헌법 17 에서 16 으로 변경되었고, 상정안은 안수직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다음과 같은, 그러나 거기에 제한받지 않는, 동성에 이끄는) 타락한 욕망들의 죄성을 부정하거나, 점진적 성화의 실체와 희망을 부정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죄악된 유혹들과 성향들과 행위들... 에 대해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승리 할 것을 추구하지 못함으로, (다음과 같은, 그러나 거기에 제한받지 않는, ‘동성애자 그리스도인,’ ‘동성에 이끄는 그리스도인,’ ‘남색하는 그리스도인,’ 혹은 그와 같은 말들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피조물로서의 그들의 정체성을 훼손하거나 그에 상충하는 정체성을 고백하는 사람들로 확인하기 위해 변경되었다.
- 필라델피아 메트로 웨스트 노회에서 상정한 헌의안 26 은, 당회들이나 노회들이 화상회합이나 전산 회의에 대한 규칙들을 채택하는 것을 허락 하도록 헌법 10 을 수정하는 것인데, 수정된대로 채택되었다. (헌의위원회는 상정된 헌법 10-7 의 변경을 삭제하고, 대신 헌법 12-6 과 13-4 의 대한 수정을 제시하는 상정안을 수정했다.)
- 노스웨스트 죠지아 노회에서 상정한 헌의안 31 은, 보조 목사가 부목사가 되기 위한 헌법 22 의 진행 [절차]를 수정하는 것인데, 수정된 대로 채택되었다.
- 퍼시픽 노스웨스트 노회에서 상정한 헌의안 33 은, [재판] 절차 없는 사례를 위한 고백문에 관한 헌법 38-1 의 수정으로, 채택되었다.
- 이스턴 펜실베니아 노회에서 상정한 헌의안 37 은, 교회의 직분을 위해 도덕적 요구를 더 구체적으로 시험하도록 헌법 21-4 와 24-1 을 수정하는 것인데, 수정된 대로 채택되었다. 상정안들은 교회 직분을 위한 후보자들을 시험 할 때 목사들, 장로들과 집사들을 시험하는 노회들과 당회들이 “다음과 같은 그러나 거기에 제한되지 않는 관계적 죄들, (동생애, 어린이 성적 학대, 음행과 춘화를 포함하는) 성적 부도덕, 중독들, 학대 행위, 인종 차별주의 및 잘 못된 재정 관리와 같은 잠재적으로 악명을 끼칠 우려들”의 다양성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

헌의위원회의 28 명 위원들이 헌의안 23 의 상정안에 사용된 언어와 병행하는 언어로 소수 보고서를 접수 시켰다. 총회는 소수 보고서를 물리치고 위원회의 추천안을 인준했다. 그것은 안수 받는 직분(목사, 장로, 혹은 집사)을 추구하는 사람은 누구나 “결코 그의 남아 있는 죄를 따른 평판이나 자기 고백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 알려져야만 한다 (고전 6:9-11)”고 하는 표준을 본 교단 헌법에 추가하게 할 것이다. 그 헌의안은 또 당회들과 노회들이 목사, 장로, 집사로서 교회 직분을 추구하는 “후보들에 대해 이런 사안들의 자세한 조사를 시행하고 그 후보들을

제 48 차 총회 결의안들 - 브라이언 채펠

기도로 후원하는 위원회를 임명 할 것”을 권장한다. 헌의안 30 은 이 헌의안에 관한 결의와 연관하여 응답되었다. 헌의안 16 은 이 헌의안의 결의와 헌의안 38 에 관한 결의에 연관하여 응답되었다.

- 갈보리 노회에서 상정한 헌의안 38 은, 인간의 성에 대한 임시 위원회의 보고를 기리자는 것인데, 채택되었다.
- 한인수도노회에서 상정한 헌의안 48 은, 반 아시아적 인종차별주의를 거절하기 위한 것인데, 얼마의 아시아계 목사님들과 장로들이 그것을 반대 했을 때 기대치 않았던 대화를 만들어 냈다. 그들은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연합을 훼손할 수 있는 한 그룹의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배려들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양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헌의위원회 안에서 다음의 진술문을 만들기 위해 협력했는데, 그것은 총회에서 압도적으로 인준되었다.

제 46 차 총회에 제출된 인종과 민족의 화해에 관한 임시위원회 보고는 모든 사람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실체와 인종 차별주의의 죄 들 다에 대해 명백하게 언급하는데, 특별히 다음의 말들을 확인 할 때 그렇다. ㄱ)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이 나오는 요한계시록 7:9-11 의 구속 받은 사람들의 환상; ㄴ) 모든 사람들 속에 반영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ㄷ) 그리스도의 몸 안에 반영되어 있는 그의 형상. (46 차총회록, 부록 V 무작위로, 그러나 특별히 599 쪽.) 동시에 우리는 아시아계 미국인 태평양 섬 주민들(AAPI)의 공동체가 경험한, 특별히 지난 해의 사건들로 야기된, 아픔과 때로는 폭력을 인정한다. 우리는 이것이 비성경적 신앙의 주장들이나 인종주의자의 교만이나 다른 어떤 원인으로 일어났든, AAPI 형제들, 자매들과 함께 지금까지 발생했던 아픔과 고통에 대한 우리의 슬픔을 표현한다. 끝으로, 우리는 우리의 AAPI 형제들, 자매들에게 우리의 사랑과 후원, 또 인종적 화해 보고서의 결단들을 반영하는 길들로 함께 걸어 갈 우리의 갈망을 보장한다.

- 메트로 아틀란타 노회와 뉴욕 메트로 노회 순서로 상정한 헌의안 45 와 46 은, 총회가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번성 하는 것을 추구하도록” 요청한 것인데, 헌의안 48 에 대해 취한 결의에 관련하여 응답되었다. 추가로, 총회는 메트로 아틀란타와 뉴욕 메트로가 작성하고 그들의 헌의안에 첨부 시킨 목회 서신에 주목하도록 지시 받았고, 총회는 메트로 아틀란타의 제안을 인준하여 총회장에게 우리의 아시아계 미국인 형제들과 자매들을 위한 합심기도 시간에 아시아계 미국인 총대가 총회를 인도하도록 임명할 것을 요청했다. 테일러 박사는 강도 장로 존 정이 그 기도를 인도하도록 소명했다.

국내선교위원회와 세계선교회원회 총대 위원회들을 통해 총회에 상정된 헌의안들

- 카타와 벨리 노회에서 상정한 헌의안 8 은, 관할권 변경에 관한 것인데, 채택되었다.
- 센트랄 캐롤라이나 노회에서 상정한 헌의안 11 은, 관할권 변경에 관한 것인데, 채택되었다.
- 미시시피 벨리 노회에서 상정한 헌의안 13 은, 어린이들 생명선의 봉사 활동을 승인하는 것인데, 채택되었다.
- 이반젤 노회에서 상정한 헌의안 14 는, 교회 개척과 교회 개발에 관련된 모든 현장 팀들의 “명령 권한” 리더십을 안수 받은 장로들로 제한하기 위해 해외선교회 정책 지침서의 수정을 요청하는 것인데, 채택되었다 (상기의 세계선교위원회를 보시오). 헌의안 3 은, 헌의안 41 이 제 47 차 총회와 관련하여 응답되었듯이, 헌의안 14 와 관련하여 응답되었다.

다음의 헌의안들은 제 48 차 총회가 채택하지 않았다.

제 48 차 총회 결의안들 - 브라이언 채펠

- 퍼시픽 노스웨스트 노회에서 상정한 헌의안들 19-21, 34 와 35 모두는, 헌법 권징조례이 있는 여러 가지 규정들의 변경을 추천하는 것인데, 제 49 차 총회의 헌의위원회에 일임되었다.
- 테네시 벨리 노회에서 상정한 헌의안들 40 과 41 은, 권징 사례들에서 피해자의 보호와 증인 자격의 확대를 허락하도록 헌법 32 와 35 에 대한 변경을 제시하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제 49 차 총회의 헌의위원회에 일임되었고, 또 추가로 가정 폭력에 관한 임시위원회에 일임하여 동 위원회에 조언을 줄 수 있도록 했다.
- 필라델피아 메트로 웨스트 노회에서 상정한 헌의안 12, 28 과 29 는, 노회의 권징적 조사들을 위한 절차들에 관한 것인데, 편견없이 그 노회로 다시 일임되었다.
- 헌의안 1 은 헌법 8-7 을 수정하기 위한 것인데, 채택되지 않았다. 그것은 본 교단의 채플린들이 오직 채플린들에 관한 장로교회와 개혁교회위원회에 의해서만 승인 되도록 요구하려 했었을 것이다.
- 헌의안 10 은 총운세 15-6.1 를 수정하기 위한 것인데, 채택되지 않았다. 그것은 헌의위원회의 소수 보고서의 내용을 제한하려 했었을 것이다. (수정된 대로를 긍정적으로 응답하라고 한 헌의위원회의 추천안은 총회에 의해 채택되지 않았다).
- 헌의안 15 는 총운세 11-2 를 수정하기 위한 것인데, 채택되지 않았다. 그것은 총회에서의 투표에 대한 전자 소통을 허락하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 헌의안 24 는 치리 장로들의 총회 등록비들을 경감하자는 것인데, 부정적으로 응답되었고, 상정된 변경안을 효과적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헌의안 39 는 헌의안 24 에 관련하여 응답되었다.
- 헌의안 27 은 헌법 36 을 수정하자는 것인데, 채택되지 않았다. 그것은 출교의 책벌이 공개적으로 수행되도록 요구하려 했을 것이다.
- 연구 위원회들을 요청하는 네 개의 헌의안들은 채택되지 않았다.
 - ✓ 성경적 윤리와 디지털 미디어에 관한 연구위원회를 요청하는 헌의안 32 와 43;
 - ✓ 백인 우월주의에 관한 연구위원회를 요청하는 헌의안 36; 그리고,
 - ✓ 비판적 인종 이론에 관한 연구위원회를 요청하는 헌의안 47.

총회 동영상들

총회의 회의들과 예배들을 녹화한 비디오들은

<https://livestream.com/accounts/8521918/events/9731338> 에서 볼 수 있다.

교회 헌법 변경들에 관한 결의들 요약

헌법을 변경하는 것은 한 총회의 다수표, 노회들의 삼분의 이의 다수표와, 차기 총회의 최종 다수표를 요구한다 (헌법 26-2).

제 48 차 총회의 최종 인준을 받은 헌법 수정안들

- 헌법 42-4, 43-2, 43-3 소송건들을 접수 시키는 방법들과 마감일들에 관한 것
- 헌법 32-8, 32-13, 35-10 증인들에 의한 비디오 증언을 허락하는 것

제 48 차 총회에 의해 인준 받도록 노회들에게 내려 보내진 헌법 수정안들

- 헌법 20-4, 24-3, 24-4 목사, 부목사와 직분자들의 선거의 관하여 (헌의안 5).
- 헌법 24-1 직분자 시험들에서 당회에게 시간에 대한 재량권을 허락하는 것 (헌의안 18 과 헌의안 6).
- 헌법 32-20 범죄들에 대한 시간의 배려들에 관한 것 (헌의안 22).
- 헌법 16-4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들의 새 정체성을 훼손하거나 상충되는 정체성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교회의 직분자로 섬기지 못하도록 실격 시키기 위한 것 (헌의안 23).

제 48 차 총회 결의안들 - 브라이언 채펠

- **헌법** 12-6 과 13-4 전자소통 회의들을 허락하기 위한 것 (헌의안 26). 주의: 원래의 헌의안은 **헌법** 10 에 추가를 상정한 것이었다. 헌의위원회가 **헌법** 12-6 과 13-4 의 변경으로 대체했다.
- **헌법** 22-2 보조 목사가 부목사가 되기 위한 절차에 관한 것 (헌의안 31).
- **헌법** 38-1 절차 없는 사례에서 고백 문서에 관한 것 (헌의안 33).
- **헌법** 21-4 와 24-1 교회 직무를 위한 도덕적 요구들을 명시하기 위한 것 (헌의안 37; 헌의안 16 과 30 은 37 에 관련하여 응답되었다).

숫자로 본 미국장로교

총회 서기는 다음의 2019 년과 2020 년 사이의 통계적 변화들을 보고했다.

- 총 교회 수는 13 교회의 증가로 1580.
- 개척 교회 수는 동일하다
- 목회자 수는 60 명 증가로 5,117.
- 주일학교 출석수는 26,700 명의 감소로 65,648.
- 총 신앙 고백자들은 1,761 명이 줄어서 8,314.
- 총 교인수(수찬교인, 비수찬교인, 목회자들)는 383 명의 감소로 383,338.
- 총 보고된 현금액은 2,905,566 불의 감소로 934,585,585 불.

제안된 기도, 헌금과 행사들

- 2021 년 10 월 17 일은 커버넌트 대학의 사역과 선교를 위한 기도의 날.
- 2021 년 11 월은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의 달 (세계선교위원회)
- 지역 당회들이 선택한 날짜에 세계선교위원회의 사랑의 사역들을 위한 특별 헌금.
- 2021 년 11 월 7 일은 전 세계의 꺾박받는 교회들을 위한 기도의 날 (세계선교위원회)
- 연례 구제 사역 헌금 (미국장로교 은퇴 및 혜택 재단)
- 총회는 (기금 마련 프로젝트들을 제외한) 십일조와 헌금 총액의 0.35 퍼센트에 근거하여 교회들이 행정위원회에 기부하도록 한 요청을 인준했다.

제 사십 구 차 총회는 2022년 6월 22-24일에, 알라바마 주 버밍햄 시에서 회합 할 것이다.